

보도시점 (온라인) 2026. 2. 9.(월) 12:00
(지 면) 2026. 2. 10.(화) 조간

주차장 빈자리 찾아 헤매지 마세요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자리까지 찾아 안내한다

- 2월 12일(목),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빈 주차면까지 내비로 안내해주는 ‘주소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 개최
- 강원 동해시-카카오-현대오토에버와 협업하여 실증한 이번 사업을 토대로 주소기반 주차 용·복합 서비스 확산 추진

< 주차 내비게이션 활용 사례 >

- ◆ 주말 아침, 가족과 울릉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묵호항으로 향하던 7씨 가족.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지만 복잡한 공영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바로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빈 주차면으로 바로 안내했다. 평소라면 주차장을 몇 바퀴 돌며 시간을 허비했겠지만 빈자리 경로 안내 덕분에 여유 있게 차를 세우고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2일(목),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630면)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용·복합 서비스(주차현황 표출, 내비게이션 안내 등)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주차장의 주차면을 공간 정보로 구축했다.
 - 도면 및 측량을 통한 주차 정보 수집, 주차면 번호 부여, 데이터 구조화 등의 과정을 거쳐 주차장 내 노드-링크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CCTV와 연동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 되도록 했다.
 -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등 참여 기관들은 제공된 실시간 주차정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앱 연계를 검토하였다.
 - 이번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플랫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기반 혁신사업 창출 사업’의 하나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2월부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주차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편리함만이 아닌 안전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며
 - “주소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마트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주소정보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희건 (044-205-3551)
		담당자	사무관	김문현 (044-205-3555)

